



새만금 SOC 예타면제 도 “법적 근거 충분해”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 추진 필요 사업에 허용
16년간 12건 중 단 1건만 면제... 11조원 개별 승인
예타 18개월 평균 소요... 기업투자 결정 지연 발생
도 “정치권과 협력 통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

“새만금 문제는 다른 것보다 하루 빨리 정리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민들의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고 충분히 대우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 -2025년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군산 방문-

새만금 사업이 35년째 지연되는 가운데, 현 정부 임기 내 실질적 진척을 위해서는 핵심 인프라 구축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SOC 사업이 개별 예타를 거처며 개발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새만금 관련 SOC 예타는 총 12건이 진행됐다. 이 중 2019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1건(8,077억원)만 ‘국가균형발전 선도사업’로 예타 면제를 받았고, 나머지 11건 총 11조4,305억원 규모의 사업은 모두 개별 예타를 통해 승인됐다.

문제는 예타 소요 기간이다. 2010년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부터 2022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까지의 예타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최장 40개월(새만금 수목원 조성)에서 최단 6개월(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까지 편차가 컸으며, 평균 18개월가량 걸렸다. 일부 사업은 2년 이상 예타에만 매달려야 했다.

개발 지연은 기업 투자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SOC와 전력, 부지가 동시에 갖춰지지 않는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연기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우려로 이어진다. 각 인프라의 완공 시점이 제각각이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 가시적인 사업 환경 조성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의 일괄 예타 면제 필요성은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새만금 사업은 단순히 개별 사업들을 모아놓은 집합체가 아닌, 모든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통합형 개발사업으로 꼽힌다.

특히 새만금 SOC들은 높은 상호 의존성을 갖는다. 도로가 건설돼도 항만이 없으면 물류 효율성이 떨어지고, 항만이 완공돼도 철도 연결이 지연되면 운송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배수갑문과 매립사업 역시 다른 인프라와 연동돼야 전체 개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법적 근거도 충분하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 10항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한 국가 정책 추진 필요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역시 지난 7월 31일 새만금사업의 용지 매립·조성 및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앞으로 예타를 받아야 할 사업은 △새만금 남부3축 도로 건설(1조1,227억원) △새만금 내부간선도로(순환링) 잔여구간 건설(5,468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개발(2,444억원) △새만금 배수갑문 증설(2,600억원) 등 4개 사업, 총 2조1,739억원 규모다.

남부3축 도로로는 새만금과 전북 외부를 연결하는 대동맥으로서 산업 입주와 물류의 핵심 축이며, 내부간선도로 잔여 구간은 교통망의 완결성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필수적이다. 환경생태용지 2·2단계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난

개발 방지를 위한 기반 인프라, 배수갑문은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 발전으로 이어지는 핵심 기반 시설이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SOC 사업은 일괄 예타면제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다. SOC는 여러 시설이 연결돼 있어 일부가 지연되면 전체 효과가 상쇄된다”며 “새만금은 SOC가 먼저 갖춰져야 투자가 뒤따르는 선SOC 후투자 구조로, 동시 완성 시 공사비 절감과 민간투자 촉발, 지역고용 창출 효과가 동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새만금 사업의 일괄 예타 면제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남원 개회 ‘제2회 전북포럼’

12일까지 SNS 퀴즈 이벤트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과 함께하는 SNS 퀴즈 이벤트를 통해 ‘제2회 전북포럼’을 알린다.

이벤트는 12일까지 진행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 홈페이지 및 공식 SNS에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SNS에서 퀴즈 이벤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답을 제출하면 된다. 정답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24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열리는 ‘제2회 전북포럼’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생명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특화 발전’을 주제로 진행한다. 기조연설은 인도의 사티트 다발라가 맡아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와 생명경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특별연설에는 중국 우비후와 작곡가 윤일상이 참여한다. 이어 K-문화관광산업 국제화 전략, 농생명산업 지역특화 발전 방안 등이 토론 주제로 다뤄진다.

/이만호 기자·남원=김기두 기자



1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전북 교육공동체 교육활동보호 헌장’ 선포식이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 소상공인, 천년 향한 도전

완주 오성한옥마을서 ‘전북천년명가협의회’ 발대식

김 지사, “지역의 자산… 안정적 운영 아끼지 않을 것”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완주 오성한옥마을에서 ‘전북천년명가협의회’ (이하 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윤여봉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장, 그리고 2019년에 1호로 지정된 섬미당 대표를 비롯해 하여 올해까지 선정된 전북천년명가 대표와 경영 승계를 준비 중인 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해 협의회 출범을 축하했다.

전북천년명가 사업은 도내에서 30년 이상 한 분야를 지켜온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 58개 업체를 지정했다. 이들은 음식, 제조, 공예, 도소매,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에서 지역의 경제 중심축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천년명가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 경영지원금, 인증 현관, 마케팅 지원, 특례보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명가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를 신설하여 정기적인 네트워킹과 공동 홍보, 정책 제안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발대식에

참석한 대표들과 직접 소통하며 전북천년명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대표들은 △전북천년명가 브랜드 인지도 강화 △관광자원과의 연계 △전북천년명가간 네트워킹 지원 등을 브랜드 가치 확산과 상생방안을 건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전북천년명가라는 이름이 도내를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지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김 지사는 “전북천년명가는 단순히 오래된 가업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 협의회가 천년을 이어갈 명가 탄생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며, 도에서도 홍보 강화와 안정적 운영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최대 15%로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가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은 10% 할인율로 판매돼 도민들의 생활비 절감과 소상공인 매출 안정에 기여해왔다. 여기에 더해 전북도는 9월부터 할인율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할인율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전주·군산·익산·완주 등 일반지역은 13%, 나머지 10개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5%까지 상향된다.

전북자치도는 소비 기반이 취약한 농산어촌 지역에 더 큰 혜택을 줘 소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발전을 꾀한

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제2차 추경에 맞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된다. 당초 올해 전북도의 발행 규모는 1조5,870억원이었으나, 추가 발행 수요가 반영되면서 약 1,000억원이 늘어난 1조6,870억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상품권 사용처도 넓어진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7월부터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소를 사용처로 추가했다.

/이만호 기자

제62회 The 62nd Jeonbuk State Sports Festival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2025. 9. 12.(금) ~ 9. 14.(일) 3일간

고창군 공설운동장과 종목별 경기장

개회식 9. 12.(금) 18:00 | 고창군 공설운동장



그 외 출연진 | 리센느, 송하예, 박상민

